2008학년도 수능시험 일정

주요업무	추진일정
세부시행계획 발표	3. 26(월)
시험 시행 공고	7. 6(금)
원서 교부 및 접수	8. 28(화)~9. 12(수)
원서 처리 및 수험번호 부여	9. 19(수)~10. 11(목)
시험일	11. 15(목)
출제위원장 기자 회견	11. 15(목) 08:40
채점	11. 16(금)~12. 11(화)
채점결과 발표 기자 회견	12. 12(수)
성적 통지	12. 12(수)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합뉴스그래픽

언어영역 10문항 줄고 시간 10분 단축

■세부계획 주요 내용

성적표에 백분위 없이 영역·과목별 등급만 표기

시험실당 수험생 28명 이하…부정행위 감독 강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년도와 비교해 언어영역 문항 수 및 시험시간이 단축되고 수험생에게 제공되는 성적이 등급으로만 표기되는 것 등이 달라지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시험일정 = 2008학년도 수능 시험은 11월 15일 목요일 각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치러진다. 12월 12일 채점 결과 발표와 동시에 성적이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언어영역 10문항 감소 = 2007학년도와 비교해 달라지는 점은 언어영역의 문항 수가 10문항 줄고 시험시간도 10분 단축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체 시험시간도 10분 줄어들게 된다.

시험 당일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 시험실 또는 대기 장소에 입실해야 하며 2~5교시는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한다.

◇성적표에 9개 등급만 표기 = 성적통지표에는 수험생이 응시한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으로 영역을 구분해 표기하며 수리영역의 가형, 탐구영역과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응시한 선택과목명을 표기한다. 표준점수, 백분위는 표시하지 않고 영역·과목별 등급만 기재된다.

영역·과목별로 점수(정답한 문항에 부여된 배점의 합)를 기준으로 수험생의 상위 4%까지를 1등급, 그 다음 7%(누적비율 11%)를 2등급으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동점자가 발생해 기준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위 등급을 주며 수리 가형은 공통문항을 이용한 선택과목 점수 조정 절차를 거쳐 등급을 부여한다.

◇시험특별관리대상자 시험운영 = 청각장애 수험생은 듣기평가 문항을 지필검사로 대체하며 고난청 수험생은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다. 시각장애(맹인) 수험생에게는 매 교시 시험시간을 일반 수험생의 1.5배로 주고 점자 문제지와 함께 1, 4교시에는 음성 평가자료(문제가 녹음된 테이프)를 제공한다. 약시 수험생에게는 매 교시 시험시간을 20분 연장해 주고 확대 문제지를 제공한다. 뇌성마비 수험생에게도 매 교시 시험시간을 20분을 연장해 준다.

◇부정행위 감독 '철저' =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 문제지는 홀수형, 짝수형 등 2개로 제작해 배부하고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반입금지 물품 등을 조사한다.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매 교시 응시자와 응시원서 및 수험표의 사진을 대조·확인하고 특히 1, 3교시 시험 시작 전 본인 확인시간을 별도로 정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정한 부정행위 유형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등이다.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시험실 퇴장 조치가 내려지고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는 것은 물론 이듬해 1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게 된다.

■시험시간 및 영역별 문항수

교시	시험 영역	시험 시간(소요시간)	문항수	비고
수험생 입실 완료 - 08:10까지				
1	언어	08:40~10:00 (80분)	50	듣기문항 5개 포함 - 08:40부터 13분 이내
휴식 - 10:00~10:20 (20분)				
2	수리	10:30~12:10 (100분)	30	단답형 30% 포함
중식 - 12:10~13:00 (50분)				
3	외국어(영어)	13:10~14:20 (70분)	50	듣기·말하기 문항 17개 포함 - 13:10부터 20분이내
휴식 - 14:20~14:40 (20분)				
4	사회/과학/직업탐구	14:50~16:56 (126분)		선택과목 응시순서는 응시원서 뒷면에 명기된 탐구영역별 과목의 순서에 따라야 함. 문제지 회수 시간은 과목당 2분임.
	시험:4과목 선택자	14:50~15:20 (30분)	20	
	서험 본과목 문제지 회수	15:20~15:22 (2분)		
	시험:3~4 과목 선택자	15:22~15:52 (30분)	20	
	시험 본과목 문제지 회수	15:52~15:54 (2분)		
	시험:2~4 과목 선택자	15:54~16:24 (30분)	20	
	시험 본과목 문제지 회수	16:24~16:26 (2분)		
	시험:1~4 과목 선택자	16:26~16:56 (30분)	20	
휴식 - 16:56~17:15 (19분)				
5	제2외국어/한문	17:25~18:05 (40분)	30	듣기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8과목 중 택1

■ 영역별 출제경향

시사성 소재 교과서 밖 내용도 다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과서뿐 아니라 시사성 있는 소재 등 교과서 밖의 내용도 두루 다룬다는 계획이다.

◇영역별 출제방향

▲언어영역(50문항)= 학생들의 언어적 사고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항과 전체적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문항을 균형있게 출제한다.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사고 등 고등사고 능력을 측정하는데 역점을 두되 어휘와 어법 관련 내용도 출제한다.

지문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생활·언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며 평소 학교수업에 충실하고 독서 체험이 풍부한 학생들이면 충분히 답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수리영역(30문항)= 단순 암기,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 위주의 문항보다는 계산능력, 이해능력, 추론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초1~고1)에 속하는 내용은 간접적으로 관련지어 출제하고 수리 가형의 선택과목 문항은 수학 I, 수학 II의 내용과 통합해 출제할 수 있다.

▲외국어영역(50문항)= 독해능력 측정을 위해 다양한 길이의 지문을 제시하며 의사소통 능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어휘 및 문법 문항을 포함한다. 교육과정의 기본어휘와 함께 심화선택과목 수준의 어휘 중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것을 출제한다.

▲사회탐구영역(과목당 20문항)= 단원 간 통합문항 출제를 권장하고 교육과정 전 범위를 고르게 출제하되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한 기초지식 및 고차적인 탐구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의 내용이나 소재는 교과서 내용에만 치중하지 않고 시사성이 있는 교과서 밖의 내용도 포함하도록 하며 자료는 표, 글, 그림 자료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한다.

▲과학탐구영역(과목당 20문항)= 단원 간 통합문항 출제를 권장한다. 과학개념의 이해 및 적용과 관련된 문항은 전체 문항 수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학문과 실생활에서 문항 소재를 고르게 활용한다.

▲직업탐구영역(과목당 20문항)=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과 실험·실습과 관련된 실제적 학습상황을 활용해 출제하되 관련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실생활에서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는 내용, 시사성 있는 내용 등도 소재로 활용한다.

▲제2외국어·한문영역(과목당 30문항)=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문법중심의 문항보다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생활 외국어 사용이 강조된 평가 문항을 출제한다. 한문영역은 한자와 한자어의 이해, 적용 능력, 한문 독해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영역·과목의 선택 및 출제범위, 문항 수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 중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은 선택할 수 있다.

수리영역은 가형과 나형 중 하나를 선택하되 수리 가형은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수리 가형은 수학 I에서 12문항, 수학 II에서 13문항, 선택과목에서 5문항을 출제하며 수리 나형은 수학 I에서 30문항을 출제한다.

사회탐구영역은 11과목 중 최대 4과목, 과학탐구는 8과목 중 최대 4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단 물리 II, 화학 II, 생물 II, 지구과학 II 과목 중에서는 최대 2과목만 선택가능하다.

직업탐구영역은 17과목 중 최대 3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제2외국어·한문영역 응시자는 8과목 중 1과목만 선택한다.

■영역/선택과목별 문항수 및 출제범위

구분 영역		문항수	출제범위(선택과목)
언어		50문항	범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
수리(택1)	'가'형	30문항 (수학 I 12문항, 수학 II 13문항, 선택 5문항)	수학 I +수학 II +선택과목(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등 3과목 중 택 1)
	'나'형	30문항	수학 I
외국어(영어)		50문항	범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
사회/과학/직업탐구(택1)	사회탐구	과목당 20문항	윤리(윤리와 사상+전통윤리), 국사, 한국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11 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11 과목 중 최대 택4
	과학탐구	과목당 20문항	물리I, 화학I, 생물I, 지구과학I, 물리 II, 화학 II, 생물 II, 지구과학 II 등 8과목 중 최대 택 4 ※ 단, 물리 II, 화학 II, 생물 II, 지구과학 II 과목 중에서는 최대 2과목만 선택 가능
	직업탐구	과목당 20문항	농업 정보 관리, 정보 기술 기초, 컴퓨터 일반, 수산·해운 정보 처리 등 컴퓨터 관련 4과목 중 최대 택 1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상업 경제, 회계 원리, 수산 일반, 해사 일반, 해양 일반, 인간 발달, 식품과 영양, 디자인 일반, 프로그래밍 등 전공 관련 13과목 중 최대 택 2
제2외국어/한문		과목당 30문항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한문 등 8과목 중 택 1

■주요대학 수능 반영

정시 일반전형서 100% 반영 고려대

전남대 정시 가 100%, 조선대 정시 가·다 최고 83%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학능력시험 중심 전형을 확대 또는 신설한 대학이 자주 눈에 띄는 만큼 수험생들은 지망 대학의 수능반영 계획을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

올해부터 수능 성적이 등급으로만 표시됨에 따라 주요 대학은 각 등급에 부여할 점수(등급간 점수차)를 결정하는 데 고심하고 있으며 계열별로 특정 영역에 가중치를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고려대=모집단위별 정원의 절반까지 우선 선발하는 정시 일반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이 수능을 100%반영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수능은 40%(학생부 50%·논술 10%)를 반영한다.

모집단위 정원의 50%를 미리 뽑는 수시 일반전형에서는 학생부와 논술을 전형요소로 하되 수능 수리와 외국어 영역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높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서강대=정시일반전형에서 30%(전체 정원 12~13%)를 수능성적만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수능 50%(학생부 교과 40%·논술 10%)를 반영한다. 수시모집의 학업우수자, 정시모집의 농·어촌학생, 실업계 특별전형 등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서울대=수능을 정시 일반전형에서만 반영하며 정원의 3배수를 뽑는 1단계에만 적용하고 2단계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내부 논의 중이며 4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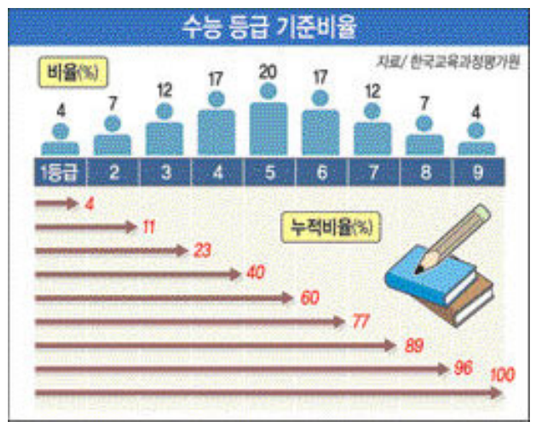
◇연세대=정시 일반전형에서 의예과, 치의예과, 예체능계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50%를 수능성적만으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는 수능 40%(학생부 50%·논술 10%)를 반영한다. 수시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수시 2-1 특기자 전형 등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이화여대=인문계와 자연계 정시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50%인 430명은 수능성적만으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절반에는 수능 40%(학생부 50%·논술 10%)가 반영된다. 수시 학업우수자전형 등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전남대=정시 가군은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고 정시 나군은 수능 40%, 학생부 50%, 면접 10%로 뽑는다. 수시 2학기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조선대=정시 가군과 다군은 학과(부)별로 수능성적을 41.7~83.3%를 반영하고 정시 나군은 수능성적을 16.7~50%를 반영한다. 수시 2-2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9등급제 도입 문답풀이

등급비율 초과하면 어떻게?

동점자 모두 상위등급 부여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통지표에는 기존의 표준점수 및 백분위가 빠지고 등급만 표시된다. 수능성적에 따른 과도한 석차경쟁, 학생 서열화 현상을 해소하고 학생부 중심의 입시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바뀐 성적 통지 방식이다.

다음은 수능 9등급제 주요내용 문답풀이.

-수능을 9등급제로 전환한 이유는.

▲현행 수능처럼 세밀한 점수를 제공하면 지나친 점수경쟁을 유발하고 학원이 수능 준비에 유리하다는 인식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백분위 및 표준점수를 내지 않고 등급만 제공하는 것이다.

등급제가 되면 수능성적 1~2점을 더 따기 위해 치열한 점수경쟁을 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등급의 학생들이라면 수능 점수가 비록 1~2점 차이가 나더라도 실력은 비슷하다.

-등급은 어떻게 구분하나.

▲영역·과목별 점수(정답한 문항에 부여된 배점의 합)를 기준으로 수험생의 상위 4%까지를 1등급, 그 다음 7%를 2등급(누적 11%), 그 다음 12%를 3등급(누적 23%)으로 정하는 등 순차적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전체 응시자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1~4등은 똑같이 1등급으로, 5~11등은 2등급으로 각각 표기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같은 등급에서는 누가 더 잘했는지 알 수 없다.

-동점자가 많이 나와 등급비율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

▲비율을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는 모두 상위등급을 부여한다. 상위 3.8%에서 4.2%까지가 모두 동점자여서 1등급 비율(4%)을 초과했다면 4.2%까지를 모두 1등급으로 한다는 얘기다.

-수능성적을 등급으로만 표기하면 변별력은 어떻게 확보하나.

▲수능 총점이 아니라 영역별·과목별로 등급이 부여되는 만큼 등급을 다양하게 조합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변별이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지금처럼 세밀한 변별력은 아니지만 학생부 성적을 보완하는 정도의 변별력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수능 등급을 자체 점수로 환산해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등급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대학들이 자체 점수로 환산한다는 것은 등급마다 얼마 만큼의 점수를 각각 부여하겠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1등급이면 200점, 2등급이면 195점 등 각 등급에 점수를 매긴다는 뜻이다. 점수 환산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9등급제 문제 없나

난이도 조절이 관건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9등급제로 전환됨에 따라 난이도 조절 문제가 가장 큰 관건으로 떠올랐다. 2007학년도까지는 수능 성적이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으로 제공돼 일부 등급의 불균형이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로 일정 부분 보완이 됐지만 2008학년도부터는 표준점수와 백분위 없이 등급만으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선택제 수능 첫해였던 2005학년도 수능의 경우 실제 사회탐구영역에서 동점자로 인해 상위 4%를 훨씬 초과한 11.37%가 모두 1등급을 받았지만 2등급은 전혀 없는 현상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이듬해인 2006학년도 수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다.

다행히 지난해 2007학년도 수능에서는 9개 등급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여 특정 등급이 비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로지 등급만 표시되는 2008학년도 수능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 때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그 어느 때보다 적절한 난이도 조정으로 고른 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쏟고 있다. 그동안 우수한 출제 교사들을 많이 확보하는 등 인력풀을 보강하고 평가원 내에서도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충분한 연구를 해왔다.

이러한 연구와 지난 3년간 쌓인 출제 노하우 덕에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고른 등급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탐구영역의 경우는 등급이 비는 현상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평가원 측의 설명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그동안 충분한 노하우가 쌓였지만 올해 수능에서 등급이 비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순 없는 만큼 난이도 조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능 성적통지표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신고교 (반 또는 졸업연도)
12345678	홍길동	890101-1087654	한국고 (0009)

구분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어)영역	과학탐구영역				제2외국어/한문영역
		'가'형(미분과 적분)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과학 I	일본어 I
등급	2	2	1	4	2	3	1	2